

개인 사업장까지 군비로...무안군 도로공사 특혜 의혹

법인 대표 요청에 창고 입구·집 앞마당까지 4000만원 들여 도로 개설 인근 방조제 공사 사업장 경관 보전 위해 시공방식 변경 안전사고 우려

무안군이 사유지와 국유지 주변 경계지는 물론 개인 사업장 내까지 군비로 도로공사를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개인 사업장의 경관 보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시공 방식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현경면에서 고구마 농사 등을 하는 친환경 유기농 업체 A법인의 사업장인 집 앞마당까지 도로를 포장하는 등 진입도로를 정비해주는 공사를 진행했다.

A법인은 무안군이 2019년 고구마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3794만원과 지방비 5억6320만원을, 2022년에도 고구마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4710만원과 지방비 4억1197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6029만원을 지원받은 유명 업체다.

군은 A법인 대표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 창고 입구와 집 앞마당까지 165m와 60m의 도로를 4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인근 바닷가 구간에 대해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법인 사업장 경관 보전을 위해 안전 파라펫 시공을 하지 않고 특수 자재 스텝블록을 사용해 시공하면서 연안정비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공사에만 3억9760만원의 공사비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경면 오류리 곡지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총공사비 29억2700만원을 들여 스텝블록 길이 160m 계단식 공간 공사를 포함, 1161m를 시공하는 공사이다. 지난해 12월20일 일부 구간은 준공하고, 현재 공사가 중지 상태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2월과 5월에 김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법인 창고 앞까지 포장해줄 것을 건의해 현경면으로 사업비를 배

정했고, 현경면에서 총 4000만원 공사 2건을 수의 계약한 업체를 선정해 준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인근 방조제 공사는 주변에 마을 어장이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햇볕 낙지철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요구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법인 김 대표는 "사업장 앞 방조제 계단식 블록은 갯벌센터에 설치해 있는 것을 보고 군 관계자에게 공사비용 차이를 물어보고 차이가 없으면 갯벌센터처럼 해주라고 한 것"이라며 "사업장 내 도로 개설은 주택 앞마당까지 토지를 나눠 기부하면서 분할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고, 사업장 내 창고부지 앞까지는 일부가 국유지이고 일부는 회사 소유지라서 군에서 도로 공사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단식 블록을 설치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까지 마을 일을 맡아서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 어촌계와 청년회에 공청회 등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안 글·사진=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A법인의 사업장 앞 현경면 오류리 곡지지구 연안정비 사업 구간. 다른 구간과 달리 이 구간은 파라펫 시공을 하지 않고 스텝블록으로 공사했다.

영광군, e-모빌리티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베트남 찾아 수출 상담회·업무협약

영광군이 베트남을 찾아 이(e)-모빌리티(전기 이동장치)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영광군은 지난달 말 다섯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응에안성 빈 시티 등을 찾아 'e-모빌리티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영광군과 전남도,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기업 등이 함께했다.

영광군 대표단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e-모빌리티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

베트남 하노이 수출 상담회에서는 지역 기업 7개 에이치비, 흥익솔루션 등 7개 기업이 2740만달러(379억원) 규모 수출 상담 51건을 받았다.

영광군 대표단은 수출상담회에 해외 구매 담당자(바이어) 30여 명을 초청했다.

농업용 트랙터 운반차를 생산하는 에이치비는 이달 3000대 규모 수출계약을 맺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 베트남 현지 기업인 HSC의 현지 생산공장 임대계약도 맺었다.



영광군 대표단이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연 'e-모빌리티 수출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한국베트남산업기술대학교와 관계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해외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광군은 베트남의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46대로, 태국의 10분의 1, 말레이시아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 e-모빌리티 제품들이 해외로 꾸준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영광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군 지속가능 도시평가 '교육부분' 전국 1위

신안군이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 결과 '교육부분'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사)한국지역경영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 발표 공동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 안전

등 5개 주요 영역과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했다.

신안군이 교육부분 119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및 초·중·고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인프라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등이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신안군은 지역안전등급 21점 획득으로 43위, 시·군·구 부분 지속가능한도시 508점 획득으로 27위, 지속가능도시 종합 508점으로 40위를 차지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신안군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신안군의 전반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군으로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kwangju.co.kr

영암 청년 소통·주거 공간 '달빛청춘마루' 문 열었다

행안부 공모 선정 83억 들여 조성 청년 맞춤형 행사·진로탐색·상담

영암 청년의 성장을 도울 '달빛청춘마루'가 영암읍에 들어섰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읍에서 우송희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청춘마루' 개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달빛청춘마루는 민선 8기 '청년 기회 도시'를 이끌 거점 공간 역할을 한다.

달빛청춘마루가 들어선 이 건물은 연면적 2211㎡ 규모, 지상 3층으로 조성됐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83억6100만원이 투입됐다.

건물 1층에는 다목적홀과 회의실, 육아 나눔터, 미디어실 등으로 구성된 달빛청춘마루가 들어섰다.

달빛청춘마루는 청년 누구나 무료로 빌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청년 맞춤형 행사와 교육이 이뤄진다. 진로 탐색·상담과 마음 건강 상담소, 수요자 중심 강연 등이 운영된다.



영암군 영암읍에 조성된 청년 공간 '달빛청춘마루'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3층에는 영암군 신규 공직자가 지낼 공무원 임대주택 '달빛그린빌'이 자리했다. 이곳에는 영암군 신규 공직자 32명이 입주할 앞두고 있다. 입주자는 광주·나주·목포 등에 주소를 둔 공직자 중 임용일·나이·출근 거리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됐고, 입주 기간은 2년이다.

우송희 영암군수는 "영암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꿈꿔보는 소통공간과 신규 공직자들의 사회생활을 든든히 지지해 줄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 건물 인근에는 청년문화거리를 만들어 청년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근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상습 가뭄' 낙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

하반기 고마도·마안도 등 구축

완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3억원을 들여 상습 가뭄 지역인 낙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 신설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해수를 정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군은 지난해 청산면 모서와 모동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억3000만원을 투입해 생일 덕우도와 금일 황제도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개량했다.

이와 함께 5억5000만원을 투입해 군의 고마도와 노화 마안도 해수 담수화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일 우도에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담수화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완도군이 설치해 가동 중인 해수 담수화 시설.

완도군 관계자는 "물 공급 시설이 취약한 낙도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항구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낙월면 민민의 날 행사에서 낙월면과 KH그룹이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 낙월 민민의 날 행사...KH그룹과 자매결연

영광 낙월면 민민의 날 행사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광군 낙월면 민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길)는 최근 송이도 친환경 가족펜션 운동장에서 '민민의 날' 행사를 치렀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주민과 향우, 봉사단체, 사회단체, 지역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KH그룹 등의 후원으로 치러졌다.

낙월면은 이날 KH그룹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윤효종과 노리가 좋다 봉사가 좋다' 회원 20명의 무대 등이 펼쳐졌다.

박영길 추진위원장은 "행사를 후원하고 도운 향우와 기업 대표, 부녀회, 발전소 직원 등에 감사사를 전한다"며 "주민들과 힘을 합해 가고 싶은 섬 살기 좋은 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친환경선박 산업 인프라 조성 박차

남향에 세계 수준 연구 집적화단지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약 1500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남향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적화단지를 구축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성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이다.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 최초의 2600t급 '해상테스트 베드(K-GTB)'는 지난해 9월 목포소재 기업에서 거처식을 갖고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형 여객선(요트)도



목포 남향 친환경선박 연구인프라 조감도.

개발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 친환경선박의 고질적 문제였던 연료소모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 5월 산업부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할 예정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